

비즈 프리즘 | 위기의 화장품 로드숍 신성장동력 찾기

인수합병·이종협업까지... “돌파구를 찾아라”

미샤·잇츠한불, 과감한 인수합병
네이처리퍼블릭, 온라인 승부수
LG·아모레 “타사 제품도 판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바이올라워 벨벳 듀이 틴트.

H&B(헬스·뷰티) 스토어와 온라인몰에 시장 주도권을 뺏기며 위기를 맞고 있는 화장품 로드숍이 부진 탈출을 위한 돌파구 찾기에 분주하다.

인수합병, 온라인 전용 및 이종협업 제품 강화, 편집매장 확대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다. 먼저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다각화가 한창이다.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는 최근 돼지코팩으로 유명한 미팩토리 지분 100%를 총액 324억원에 인수했다. 에이블씨엔씨는 “이번 인수로 신규 브랜드 론칭 및 새 콘셉트의 제품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향후 매출을 1000억원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했다. 잇

츠한불은 색조화장품 전문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DM(제조자가 생산) 제조업체인 안스를 인수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섰다.

제품 차별화도 눈에 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경우 온라인 전용 제품으로 승부를 띄웠다. 바이올라워 벨벳 듀이 틴트, 키스 마이 미니 립스틱 키트 매트 에디션 등을 내세워 온라인몰 강화와 디지털 콘텐츠를 선호하는 젊은층 공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니모리는 이종 협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모스키노와 손잡고 가을·겨울 시즌 컬렉션을 내놓았다. 하이힐, 모자, 가방 등 모스키노의

패션 제품을 연상시키는 아이템과 모스키노의 멀티 색상 로고가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는 등 고급스러운 패키지가 특징이다.

아예 매장을 H&B(헬스·뷰티) 스토어 형태의 멀티 편집 매장으로 바꾸는 곳도 있다. LG생활건강은 비온드와 더페이샵의 매장을 편집숍 네이처컬렉션으로 전환하고 있다. VT코스메틱과 방탄소년단이 협업 제작한 VT×BTS 에디션 화장품을 독점 판매하는 등 타사 브랜드 판매에도 시동을 걸었다. 아모레퍼시픽도 아리따움 라이브 서울 강남 매장에 자사 브랜드 외에 메디힐, 더블랩, 스틸라, 파머시 등 무려 59개나 되는 타사 브랜드를 대폭 입점했다.

뷰티 업계 관계자는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화장품 로드숍의 타계책들이 히트상품 탄생 등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yay@donga.com



토니모리와 모스키노가 협업한 가을·겨울 시즌 컬렉션. 위기에 직면한 화장품 로드숍이 신성장동력 찾기에 한창이다. 사진제공 | 토니모리

한눈으로 보는 경제

21일

코스피지수	2076.55	↓	-6.03
코스닥지수	695.72	↑	+4.91
日 닛케이 지수	2만1507.54	↓	-75.58
中 상하이 종합	2651.51	↑	+5.65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94	-	0.00
환율 (원 / 달러)	1130.50	↑	+2.00
국내금값 (원/그램)	4만4521.92	↑	+127.40

인테리어 IT 기기... 옥션 AI 스피커 판매 ↑

인테리어 IT기기가 인기다. 옥션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인테리어 IT기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캐릭터를 활용한 것부터 메탈 소재 디자인까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AI 스피커가 2배(143%) 이상 증가했고, 스마트 홈 관련 제품도 32% 늘었다. 스마트기기를 통해 제어하며 다양한 컬러로 바꿀 수 있는 스마트 램프는 90% 증가했다. 슬림한 디자인의 IoT 선풍기와 모던한 느낌의 IoT 밥솥도 모두 2배(100%) 증가했다. 이밖에 IoT 스위치(117%), IoT콘센트(105%), 스마트 플러그(70%), IoT 공기청정기(106%) 등도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김명근 기자

손정의 회장, 쿠팡에 2조 3천억 지원

2015년 이어 또 대규모 투자 지원
유동성 확보·물류 및 결제 강화

e커머스 기업 쿠팡이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로부터 2조3000억대의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동안 계속된 적자에 시달리던 쿠팡으로선 새롭게 시장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쿠팡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0억 달러(약 2조2500억원)의 투자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 소프트뱅크로부터 10억 달러 투자를 받은 지 3년 만이다. 특히 이번에는 투자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나 한국 인터넷 기업 중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기록을 세웠다.

소프트뱅크의 이번 투자는 당장의 수익성 악화보다는 성장 가능성을 더 높게 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김범석 대표가 보여준 거대한 비전과 리더십은 쿠팡



투자자 결정된 뒤 일본 도쿄 소프트뱅크 그룹 본사에서 만난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왼쪽)과 김범석 쿠팡 대표. 사진제공 | 쿠팡

쿠팡은 그동안 영업손실 누적으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많았다. 쿠팡의 영업손실 규모는 2015년 5470억원, 2016년

5652억원, 2017년 6388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2018년 매출이 5조원(전망치)에 이를 만큼 규모를 키웠고 로켓배송과 로켓페이 등 물류 및 결제 시스템 등에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온 것도 사실이다. 쿠팡은 이번 투자를 통해 확보한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물류 및 결제 플랫폼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소프트뱅크와의 파트너십에 힘입어 데이터와 물류, 페이먼트 플랫폼을 혁신할 것이며, 고객이 점점 더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하도록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배짱 영업’ 아고다·부킹닷컴, 공정위 제재

지난해 시정권고에도 문제 약관 유지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환불불가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두 업체는 숙박 예약일까지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숙박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해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지적

이다. 공정위는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아고다, 부킹닷컴을 비롯해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호텔패스클럽 등 7개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해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지적을 받은 7개사 중 아고다와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가 자진 시정하지 않아 공정위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후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해당 조항을 고쳤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계속 약관을 유지했다. 만약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고도 60일 이내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김명근 기자

GKL·관광공사, ‘사회적 가치 실현’ 협약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유태열)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20일 서울 삼성동 GKL 본사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양사는 앞으로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여행향유권 확대, 관광객 차별 해소 및 여행 안전 보장,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지 환경 보전, 기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김재범 기자



교육·퍼즐

에듀윌

NCS기반 채용 대비법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쿠키.kr WWW.매직스도쿠.kr

확대되는 공기업 채용시장...봉투모의고사로 실전 감각 UP!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이 공개한 공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전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총 1만7277명을 채용한 가운데, 2017년에는 2만2554명을 채용했다. 이는 4년 만에 1.3배가 증가한 수치로 2018년의 경우 아직 4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만2734명의 신규 채용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취업문이 활짝 열리면서 취업 준비생들은 NCS 기반 채용 방법에 대해 더욱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NCS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뜻으로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국가가 운영하는 직무 현장에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체계화한 것이다. 즉 NCS 기반 채용이란 직무 능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채용 방식을 말한다.

최근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기업의 경우 NCS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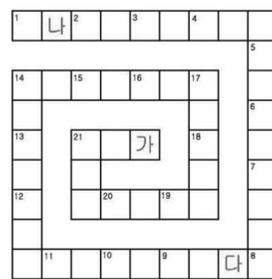


해 뜨거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에듀윌은 최신 기업별 맞춤 커리큘럼과 함께 ‘공기업 취업’ 신규 수강생 전원에게 ‘에듀윌 NCS 핵심 영역 실력 진단 테스트’ 즉집게 봉투 모의고사’를 증정한다. 봉투 모의고사란 수험생이 실전 감각을 높일 수 있도록 별도의 봉투에 담아 학습하는 교재로, 실전 감각 유지에 좋다. 에듀윌이 무료로 제공하는 봉투모의고사는 총 2회분이 수록돼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자기 소개서와 면접, 필기시험 등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취업생들은 ‘NCS 기반 공기업 취업 역량 강화’에 대

■ 낱말문제



01.돈을 받고 남의 빨래나 다림질 따위를 해주는 곳. 02.불을 끄는 도구. 03.장래의 발전을 기대할 만한 인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04.단정을 곱게 하여 아름답게 꾸민 누각. “오란화오” 05.주로 여자의 다리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06.미

인을 주제로 그린 그림. 07.처녀가 나이로 보아 시집가기에 알맞은 때. “오요시오” 08.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섬. 09.짚,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 ‘오롱오’ 10.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 11.비가 오려고 하거나 올 때, 비에 맞으면 안 되는 물건을 치우거나 덮는 일. 12.승부를 빨리 내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끌어 싸우는 전쟁이나 시합. 13.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 14.땅속의 토사·암석 따위의 빈틈을 채우고 있는 물. 15.설거지할 때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 16.예측할 수 없는 앞일. 17.서양화에서, 물감을 물에 풀어 그려 그린 그림. 18.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맴시를 이르는 말. “오용월오” 19.대한민국의 국기. 20.일

정한 원칙도 없이 그때그때의 정세에 따라서 자신에게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는 경향. 21.조선 시대에 둔, 행정부의 최고 기관.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 낱말을 모두 풀 다음 가.나.다를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 제목이 됩니다.

